

보 도 해 명 자 료

(19. 4. 10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2003년부터 진행된 “지열에너지” 개발사업은 “지열발전”
기술개발사업이 아님

(KBS 시사기획 창 4.9일자 방송에 대한 해명)

- ◇ 포항 지열발전 연구개발사업이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2003년부터 4년동안 진행되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
- ◇ 4월 9일 KBS, 시사기획 창 <세 번의 기회 놓쳤다>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1. 보도 내용

- 포항 지열발전 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2003년부터 4년 동안 진행됨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포항 지열발전 사업(과제명 :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)은 2010년부터 추진된 사업임
 - 과제 기획부터 공고, 사업자 선정, 사업 착수 등 모든 과정이 2010년부터 추진되었음
 - 2003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는 주택, 건물 등에 난방, 온수 등으로 ‘열’ 에너지를 활용하려는 것이었으며,
 - * 지열에너지 : '18년 기준, 주택 14,623개소, 건물 2,312개소 등에 활용중
 - 2010년부터 추진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은 ‘전기’ 생산을 위해 국내 최초로 시도된 지열발전 실증사업으로 전혀 다른 사업임
- 따라서, “포항 지열발전 연구개발사업”이 2003년부터 4년동안 진행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이용필 과 장(044-203-5360)
이기현 사무관(044-203-5362)